국어 다락(多樂)방
- 문제가 되는 문학 개념어

국어 영역을 시작할 때
필요한 책
국어 영역에 응시할 때
가져갈 책

고등학교 3년 과정
내신과 수능 '문학 개념어'는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세계의 자아화, 자아와 세계의 대결, 숭고미, 골계미, 해학, 풍자, 모방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페르소나,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 내재율, 음수율, 음보율, 비유와 상징, 대유, 낭만적 아이러니, 표층적 역설, 언어 유희, 정신적 이미지, 선경후정, 시상의 확대, 전형적 인물, 조력자, 갈등, 배경, 액자식 구성, 피카레스크 구성, 서술, 묘사, 대화, 제한적 시점, 초점화, 시점의 이동'' 등등

개념이 있고, 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있고,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념은 작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학에서 개념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의 의미는
반드시 기출 문제로부터 추출해야 합니다.

작품으로부터 개념을 이해하고,
기출 문제에서 개념을 확인하는
이 책은 문학 개념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시험장에서 평가 문항을 잘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고 집필된 책입니다.
문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 소설, 수필, 극 문학을 해석하고 이를 내면화한 결과가 저마다 그 모습이 각기 다양할진대 일률적으로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합당한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 소설, 수필, 극 문학을 해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길잡이가 없다면 수많은 독자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의 끝에 답은 구하지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문학의 다양성이 문학의 본질이라 할지라도,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애매하고 모호하였습니다.
그 애매함과 모호함을 10여 년이 지나서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문제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책들에 비한다면 이 책은 집필 기간도 짧았을뿐더러 축적된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굳이 한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끊임없이 답습되고 재생산된 개념어 설명에서 탈피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서적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온전히 집필하였습니다.
내용과 과정의 진실성이 이 책의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후에 '문학에 답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꼭 깨닫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 차

Ⅰ. 문학의 인식

1. 문학의 장르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월선헌십육경가」(신계영), 「어촌기」(권근)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천변풍경」(박태원), 「오발탄」(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2. 문학의 미적 범주

↳ 개념의 적용: 2008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길」(윤동주), 「제망매가」(월명사)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폭포」(김수영),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오규원)

3. 문학을 보는 관점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천변풍경」(박태원)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거십팔곡」(권호문)

Ⅱ. 서정 장르

4. 시적 화자와 시의 어조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사미인곡」(정철)

↳ 개념의 적용: 201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새 1」(박남수), 「어머니의 그륵」(정일근)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상춘곡」(정극인), 「고산구곡가」(이이)

↳ 개념의 적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행가」(홍순학)

↳ 개념의 적용: 2018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플라타너스」(김현승), 「달」(정지용)

↳ 개념의 적용: 2021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산상의 노래」(조지훈), 「나무의 수사학 Ⅰ」(손택수)

5. 시의 언어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A 「상한 영혼을 위하여」(고정희)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국화야 너는~」(이정보),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 개념의 적용: 2017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방옹시여」(신흠)

↳ 개념의 적용: 2018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고풍 의상」(조지훈)

6. 시의 운율

↳ 개념의 적용: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산 뻐꾹새」(송수권), 「면앙정가」(송순)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청명」(김영랑), 「초록 바람의 전언」(고재종)

7. 시의 비유적 표현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 「파초우」(조지훈), 「사평역에서」(곽재구)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 「낙화」(이형기)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 「어와 동량재를~」(정철), 「고공답주인가」(이원익)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A 「탄궁가」(정훈)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상춘곡」(정극인), 「고산구곡가」(이이)

8. 시의 상징적 표현

↳ 개념의 적용: 2010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소년에게」(이육사)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알 수 없어요」(한용운), 「배를 매며」(장석남), 「사미인곡」(정철)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또 다른 고향」(윤동주), 「자화상·2」(오세영)

9. 시의 수사적 표현

↳ 개념의 적용: 2017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병원」(윤동주), 「나무」(박목월)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도산십이곡」(이황)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B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어이 못 오던다~」(작자 미상), 「청천에~」(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10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발열」(정지용)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B 「전원사시가」(신계영)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 「고향 앞에서」(오장환), 「낡은 집」(최두석)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새」(김기택)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나희덕)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B 「생명의 서·일장」(유치환), 「농무」(신경림)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 「상사곡」(박인로)

10. 시의 이미지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만분가」(조위)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추일서정」(김광균), 「하늘과 돌멩이」(오규원)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동장유가」(김인겸)

11. 시상 전개 방식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팔원-서행시초」(백석), 「동승」(하종오)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농가」(위백규), 「농가월령가」(정학유)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와사등」(김광균), 「울타리 밖」(박용래)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B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고고」(김종길)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B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김기택)

Ⅲ. 서사 장르

12. 소설의 인물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가객」(황석영)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 「아홉 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윤흥길)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토지」(박경리)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A 「옥단춘전」(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B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13. 소설의 사건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B 「무영탑」(현진건)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AB 「유충렬전」(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씨삼대록」(작자 미상)

14. 소설의 배경

↳ 개념의 적용: 201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최척전」(조위한)
↳ 개념의 적용: 2021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봄·봄」(김유정)

15. 소설의 구성

↳ 개념의 적용: 201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나룻배 이야기」(하근찬)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전우치전」(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A 「무진기행」(김승옥), 「안개」(김승옥)
↳ 개념의 적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촌수필」(이문구)
↳ 개념의 적용: 2011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잠시 눕는 풀」(김원일)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 개념의 적용: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홍계월전」(작자 미상)

16. 소설의 문체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흥부전」(작자 미상)
↳ 개념의 적용: 2018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큰 산」(이호철)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전거 도둑」(김소진)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B 「조웅전」(작자 미상)

17. 서술자와 시점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한계령」(양귀자)
↳ 개념의 적용: 2020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자서전들 쓰십시다」(이청준)
↳ 개념의 적용: 2015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B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 개념의 적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천변풍경」(박태원)
↳ 개념의 적용: 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A 「구운몽」(김만중)
↳ 개념의 적용: 2008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 개념의 적용: 201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역마」(김동리)
↳ 개념의 적용: 201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삼대」(염상섭)

17 서술자와 시점

1. 서술자

가. 소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전개해 나가는 사람 ➜ 작가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구적 대리인

나. 서사 내용과 독자 사이에 개입하는 화자

2. 시점

가. 이야기에 대한 서술자의 존재 방식 ➜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의 범위에 따라 결정

구분	사건의 내부적 분석	사건의 외부적 관찰
서술자 = 등장인물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	부수적 인물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
서술자 ≠ 등장인물	분석적이고 전지적인 작품 밖의 제3의 인물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	작품 밖의 제3의 인물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함.

나. 시점의 유형

1) 1인칭 주인공 시점

가) 소설의 주인공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시점

나) 성격의 초점과 서술의 초점이 일치하는 시점으로 1인칭 주관적 시점이라고도 함.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1) 독자들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이야기의 내용을 실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 실재성에 대한 환상

(2) 독자들에게 신뢰감, 친근감을 주고,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 증대

(3) 이야기를 하나의 관점으로 끌고 가는 응집력이 강함.

(4) 심리 등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에 적합

(5) '나'라는 주관화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이나 범위가 '나'의 경험에 국한됨. ➜ 객관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예) 「만세전」(염상섭): '나'라는 주인공이 조선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

<상략>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유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 번 위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략>

-「만세전」(염상섭)

---

2) 1인칭 관찰자 시점

가) 소설에 등장하는 부수적인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시점

나) 서술자로 등장한 '나'가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설정되고, 성격의 초점은 주인공에게 있음.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1)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시점의 주관성,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할 때는 관찰 대상의 객관성을 함께 유지함. ➜ 종합적 효과

(2) 1인칭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줌.

(3)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하여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높아짐.

(3) 작가 관찰자 시점에 비하여 서술자의 관찰의 기회가 제한됨.

예)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나'라는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서술함.

<상략>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구 줘."

하고 불쑥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 번 둘러 보시더니

"옥희야, 그런 걸 받아 오문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하략>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

3) 전지적 작가 시점

가) 작품 밖의 전지적이고 분석적인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분석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시점

나) 전지적 작가 시점의 효과

(1) 서술의 각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각적으로 그려낼 수 있음.

(2)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줌.

(3)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예)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의 내면을 모두 서술함.

<상략>
그래도 주 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번은 주 대위가 저리 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 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 대위가 말하는 데로 가 보니, 바위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십 리 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김 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어져 거의 기능 시늉이었다.

<하략>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 서술자의 개입

○ 작중 인물이 아닌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

▪ 어떤 인물이나 사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 및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함.

예) 「춘향전」(작자 미상): 서술자가 '춘향'의 모습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독자를 상정하고 말을 건네거나 독자를 언급하는 경우

예) 「춘향전」(작자 미상): 인물들에 대해 '거동 보소'라며 독자의 존재를 상정함.

▪ 특정 사건 혹은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요약을 하거나 묘사를 하는 경우도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기도 함.

<상략>
춘향의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렷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 아니로다.

<중략>
이때에 어사또 군호할 제, 서리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졸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올 망건, 공단 쌔기 새 평립 눌러 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 고의 산뜻 입고 육모방치 녹피 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예서 번뜻 제서 번뜻, 남원읍이 우군 우군, 청파 역졸 거동 보소.

<하략>

-「춘향전」(작자 미상)

4) 작가 관찰자 시점

가) 소설의 이야기가 작품 밖의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시점

나) 작가 관찰자 시점의 효과

(1)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과 태도를 견지

(2) 감정이나 심리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추상적인 관념으로 흘러가지 않음.

(3)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암시만 하여 독자들의 직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게 함.

(4) 생생한 묘사나 구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 자체가 극적임. ➜ 극적 시점이라고도 함.

(5) 작가의 사상이나 관념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움.

■ 제한적 시점

○ 제한적 시점

▪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전지성을 발휘하고 나머지 인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관찰만을 유지하는 시점 ➜ 특정 인물이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

▪ 서술에 있어서 관찰의 한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특정 인물의 생각에 대한 서술이 나타남. ➜ 하나의 작품에서 한 가지 시점만이 적용되지 않음.

예) 「소나기」(황순원): 작가의 전지성이 부분에 따라 '소년' 또는 '소녀'에게만 발휘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관찰으로만 서술

예) 「감자」(김동인): '복녀'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다가 특정 부분에서 '복녀'의 생각을 해설

<상략>
소년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하략>

-「소나기」(황순원)

<상략>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중략>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 할 일이 아니었다.

<하략>

-「감자」(김동인)

■ 시점의 이동

○ 정확하게 중심인물(성격의 초점)을 한 인물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시킴으로써 독자가 다각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는 기법으로 이동 기술법이라고도 함. ➜ 초점자의 위치가 바뀌거나 서술자가 교체되는 것

예)「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영수, 영호, 영희'로 서술자가 교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에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중략>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형은 언제나 나보다 생각이 깊었다. 아는 것도 많았다.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중략>

이렇게 긴 밤을 새워 보기는 처음이다. 한 밤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열일곱 해는 얼마나 긴 것인가. 그러나 큰오빠가 셈해본, 우리 선조 대대로의 세월에 비하면 열일곱 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 초점화

○ '서술자'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누가 이야기하느냐'와 '누가 보느냐'의 층위를 구분하는 것

○ 초점화란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누가 보느냐'에 주목하여 소설의 텍스트를 해석

예)「눈이 오면」(임철우): '찬우'의 시각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서술

○ 초점화의 주체를 초점자라 하는데 초점자는 작품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음.

예)「배따라기」(김동인): 초반부의 초점자는 '나'였지만 액자 소설 내부에서 장면에 따라 '그'로 초점자가 바뀜.

<상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다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시로 밖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는 기색으로 곁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 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뭣 하러 나다녀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하략>

-「눈이 오면」(임철우)

<상략>

나는 또 물어 보았다.

이때에 그는 또다시 배따라기를 시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중략>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이노라니까, 어떤 낡은 옷뭉치를 들칠 때에 문득 쥐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후닥닥 뛰어나온다. 그리하여 저편으로 기어서 도망한다.

"역시 쥐댔구나."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덜썩 주저앉았다.

<하략>

-「배따라기」(김동인)

✎ 한 줄의 TIP

● 서술자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 첫째,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지 점검하세요.
- ✔ 둘째, '나'가 등장한다면 핵심 사건의 주인공인지 점검하세요.
- ✔ 셋째,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인물의 생각까지 서술이 되는지 점검하세요.

● 독특한 시점의 쓰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 제한적 시점(초점화)이나 시점의 이동이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 ✔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세요.

17-①

개념의 적용 - 2019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숱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씨의 억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 양귀자, 「한계령」 -

7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